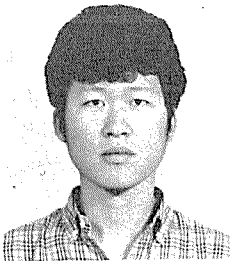


뱀·개구리 생식하면 스파르가눔에 감염된다.



김 기 홍

1965년 4월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제정·공포한 이래 꾸준히 계속되어 온 기생충박멸사업으로 인해 과거 크게 유행하던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동양모양선충등 장내에 기생하는 기생충 감염율은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여러종류의 기생충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남아있다. 이러한 기생충질환중 우리가 흔히 행하는 인습적인 생활습관으로 인해 많은 증례가 발견되고 있는 스파르가눔증(sparganosis)에 대해 그 증상및 감염경로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스파르가눔증이란?

열두조충과에 속하는 조충류의 유충을 스파르가눔이라 부르며, 이 유충에 의한 인체감염을 스파르가눔증이라 한다.

스파르가눔 충체는 많은 주름이 있는 유백색의 끈모양으로 전방이 약간 두툽고 전단에는 흡이 있다. 사람에서 발견되는 충체는 길이가 10~20cm 정도의 큰 기생충이다.

스파르가눔에 감염된 사람은 국소적으로 응어리가 만져지며, 주기적으로 담마진과 부종및 홍반등이 나타나는데 오한, 발열, 호산구증다증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본증은 주로 감염된 후 여러해가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경과를 취하여, 기생기간이 경과될 수록 유충은 퇴화하면서 심한 국소적 염증반응과 괴사를 일으킨다. 기생 부위는 안구근처, 복부, 대퇴부, 서혜부, 근육조직, 피하조직및 흉곽내 장기에서도 발

견된다. 인체에서 발견되는 총체는 대부분이 단수기생이지만 때때로 많은 수의 총체가 발견되기도 한다.

2. 생활사및 감염경로

중숙주인 개나 고양이등의 변과 함께 외계로 배출된 총란은 수중에서 부화하여 코라시디움(coracidium)이 된다. 코라시디움은 물벼룩의 체내에 침입하여 프로서코이드(proceroid)라 불리는 유충단계가 되며, 이 프로서코이드 유충에 감염된 물벼룩이 제2중간숙주인 개구리, 뱀, 조류, 어류등에 의해 섭취되면 이들 체내에서 플레로서코이드(plerocercoid)유충, 즉 스파르가눔이 된다.

이 스파르가눔을 개나 고양이가 먹는 경우에는 성충으로 완전히 발육하여 위와 같은 생활환을 반복하게 되지만, 사람과 같은 비호적숙주에 의해 섭취되는 경우에는 크기만 커질뿐 성충으로 발육하지 못한채 플레로서코이드유충단계로 머물면서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사람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본 조충의 중간숙주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스파르가눔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로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프로서코이드유충으로 감염된 물벼룩이 들어있는 불결한 음료수를 마실 때, 둘째는 플레로서코이드유충이 기생하는 개구리나 뱀, 담수 어등을 생식할 때, 세째는 플레로서코이드유충이 기생하는 개구리나 뱀이 감염된 근육으로 안구근처 상처부위에 습포를 만들

66

스파르가눔에 감염된
뱀을 사람이 날로
먹게되면 스파르가눔이
창자벽을 뚫고 나가
온몸을 돌아다니게 된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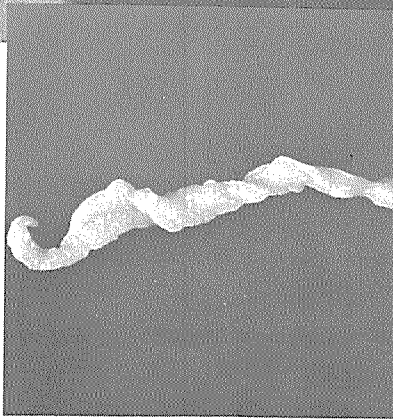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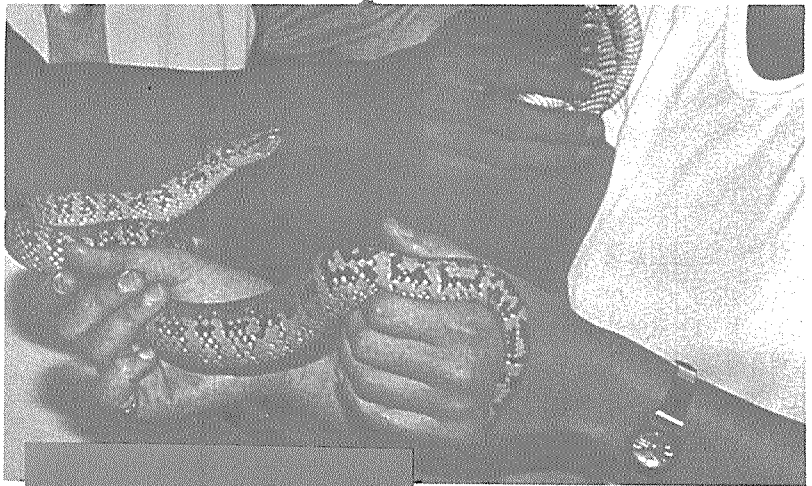
어 사용하였을 때 등이다.

이러한 3가지의 감염경로는 우리나라의 스파르가눔증 증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감염원이 뱀및 개구리를 생식함으로써 발병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뱀은 보신, 보양제및 신경통, 결핵 등에 효력이 있다하여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애용해온 식품(?)중의 하나이며, 또한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생존 훈련시 뱀 및 개구리를 생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관계로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스파르가눔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염원및 감염배경의 특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스파르가눔증 증례의 남녀비가 약 5:1정도로 남자에게 높게 나타나며, 특히 보양의 필요성을 많이 주장하게 되는 중년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과거 어린시절을 돌이켜 더듬어 보면 개



▲스파르가눔이 사람 몸의 어느 한 부분, 예를들어 복부근처로 이동하여 정착하게 되면 그 부분에 응어리가 형성되어 손으로 감지할 수 있다.

◀ 스파르가눔증 환자에게서 적출한 스파르가눔의 모양

구리 뒷다리를 콩과 함께 구워서 맛있게 먹던 낭만적인 추억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개구리의 뒷다리, 통통한 허벅지부근에 이러한 스파르가눔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약간은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다.

개구리의 경로는 넓적다리 부위에 1~2 개체 정도의 스파르가눔이 기생하나, 이러한 개구리를 잡아먹고 사는 뱀은 계속적으로 스파르가눔이 체내에 축적되게 되며 종종 100여 마리가 넘게 기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개구리나 뱀의 스파르가눔 감염율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나타낸다. 스파르가눔이 뱀에 기생하는 부위를 살펴보면 피하조직, 근육 층 및 체강 등에 기생하고 있으며, 이렇게 감염된 뱀을 사람이 날로 먹게 되면 스파르가눔이 창자벽을 뚫고 나가 온몸을 돌아다니게 된다.

스파르가눔이 사람몸의 어느 한 부분, 예를들어 복부 근처로 이동해와 정착하게 되

면 그부분에 응어리가 형성되어 손으로 감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스파르가눔이 그부위에 완전히 정착한 것이 아닌 일시적 체류이기 때문에 몇달 정도가 지나면 처음에 기생했던 부위의 응어리는 없어지고 대신 대퇴부와 같은 몸의 다른 부분으로 이주해와 그곳에서 다시 응어리를 형성하게 된다.

반드시 개구리나 뱀을 날로 먹지 않는다 해도 프로스코이드유충에 감염된 물벼룩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한 감염원이 될 수 있다.

물벼룩은 고인물뿐만 아니라 흐르는 물에도 서식하는 종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 눈으로 보기에 깨끗하다고 하여 함부로 물을 마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위에 든 경우외에 인도지나등지에서는 안질에 걸린 경우 민간요법으로 개구리근육을 눈부위에 습포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로 인해 안부스파르가눔증에 걸린 환자를 흔히 볼 수 있다.

3. 치료및 예방

치료는 외과적 적출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방책으로서는 뱀뱃 개구리를 먹을 경우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하며, 야외에서 물을 마실 경우에는 끓이거나 걸러서 먹어야 한다. 또한 염증이나 피부점막부위에 개구리나 척추동물의 근육을 사용하는 원시적인 치료방법등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 고려의대 기생충학교실)

-제70회 전국제전

“오륜영광 재현하여

민족체전 꽃피우자”

- 개최지 ; 경기도
- 개최기간 ; 1989. 9. 26~10. 1
- 메인스타디움 ; 수원 종합체육관